벤처기업 대표들의 해외출장

"고추장 캔부터 캠코더까지"

벤처기업 사장들은 해외출장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

글로벌시대 해외진출은 기본이다. 대덕밸리 기업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초보 비즈니스맨들을 위해 베테랑 선배들의 해외출장가방을 들여다 보자. 커다란 가방에 옷가지만 잔뜩 들어있다면 그건 분명 초보자다. 반면 작은 가방인데도 개인물품에서 비상약품까지 고루고루 챙겼다면 일단 그는 경력자다.

오징어 20마리와 고추장캔. 한글검색엔진 최초 개발자인 케이시크(www.kseek.com) 김영렬 대표의 출장 필수품목이다. 김 대표는 중국, 일본을 제외한 해외출장의 경우 오징어와 고추장캔을 꼭 챙겨 현지 한국인들과 입맛 떨어진 출장 동료들에게 건네준단다. 음식 향수병에 걸려 고달파하는 출장동료들에게 특효약이기 때문이다.

이머시스(www.emersys.co.kr) 김풍민 대표는 해외출장을 자주 다니는 출장 베테랑이다. 김 대표의 차림은 단출하다. 제품 카다로그와 노트북, 그리고 명함이 출장채비의 전부다. 출장시 무엇보다 회사 홍보와 관련된 품목들을 가방 속에 꼭 챙기지만 나머지 것들은 챙겨도 그만 안 챙겨도 그만인 것들이다.

적어도 1년에 5~6회정도 일본출장을 떠나는 대덕밸리 벤처기업 메닉스(www.menix.co.kr)의 이상수 대표는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를 꼭 챙긴다. 출장 때마다 경쟁사 제품과 자료들을 찾아 캠코더에 담는 일을 빼놓지 않는다.

이밖에 출장길에서도 체력관리를 위해 수영복과 수영모를 준비하는 대표들이 있는가하면 비즈니스를 위해 잘 차려진 옷을 입으려고 양복이 구겨지지 않도록 큰 가방을 출장 필수품으로 조언하는 대표들도 있었다.

美 KIN, 대덕밸리에 실리콘밸리사무소 개설 검토

미국 실리콘밸리 한국IT네트워크(회장 이경동)는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백종태 회장을 만나 대덕밸리에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개설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덕밸리에 실리콘밸리 사무소가 개설될 경우 대덕밸리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원활해지는 한편 고질적인 어려움인 마케팅도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IT네트워크 회장단은 대덕밸리 벤처들과 연계해 실제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는 질높은 세일즈 마케팅을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덕밸리와의 실질적 마케팅 교류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세일즈 마케팅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 이인구 국장은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연계돼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덕 신제품/신기술 ■

케이엠텔 스마트 포인터, 의사들에 인기

프리젠테이션 레이저 포인터가 의사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프리젠테이션 레이저 포인터란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슬라이드 화면을 무선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RF(고주파회로)방식의 프리젠테이션용 레이저포인터 '스마트 포인터'를 개발, 출시한 케이엠텔(대표 연광일)은 최근 이 회사의 제품이 프리젠테이션을 자주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제약회사로부터의 주문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의사들 사이에서의 명성에 힘입어 제약회사의 의사 대상 판촉용품으로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이 제품은 RF(고주파회로)방식을 채택, PC로부터 반경 15M 내에서 어느 방향에서든 프리젠테이션의 슬라이드 화면을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수 있어 보다 역동적인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하다.

케이엠텔 연 대표는 "의사들 뿐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을 자주 하는 기업인, 교수, 보험회사 등에서 꾸준히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내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일본 · 미국 등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